

탈북 청소년의 노래와 놀이에 관한 연구

The Songs and Play-games of Juvenile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서 미 옥*

Suh, Mee Ock

김 현 아**

Kim, Hyun Ah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ongs and play-games of youngsters who escaped from the North and came to South Korea. The 5 female and 1 male participant mostly entered South Korea through Chinese, Viet Nam and Cambodia after escaped from the North.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e researcher collected 31 North Korean songs and 21 play-games. Themes of songs were devotion their's country and/or their's national leader, a television serial drama and such traditional play-songs as komojul-nomki(jumping the rubber rope). Data from the collected songs and play-games indicated similar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oth North and South Korean children liked a television serial drama songs and both sides played similar games, through sometimes the name was different.

Key Words : 탈북자(peoples escaped from North Korea), 청소년(juvenile), 노래(songs), 놀이(play-games)

※ 접수 2003년 8월 31일, 채택 2003년 10월 10일

* 교신저자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E-mail : withsmo@hanmail.net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 서론

21세기를 맞이하여 민족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고, 1994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는 2003년 8월 현재까지 총 3,847명이 입국하였으며 국내 거주인원은 총 3,598명에 달한다. 또한 1996년 이후로 가족단위 입국이 늘어나면서 남한에 먼저 입국한 40·50대 부모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남한으로 이주시킴으로써 탈북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이 100여명이었으나, 2003년 8월 기준으로 11-20세 연령의 탈북 청소년은 363명인 것으로 추산된다(통일부 내부자료, 2003).

분단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사회화되어 자라왔던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는 매우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민성길, 2000, 민성길, 2002; 이기영, 2002; 이순형, 1999), 최근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회의 연구단체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남한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박지영, 2002; 정병호, 2001; 조소연, 2001)과 생활적응을 위한 연구(박모란, 2002; 엄경남, 2001; 전익수, 2001; 정창호, 2002; 홍덕기, 2002)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를 논의함에 앞서 그들이 탈북 이전에 어떤 문화와 정서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한사회 적응 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화적 이질감을 예측하고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탈북 청소년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영에 의하면(2000),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의 노래나 놀이와 같은 청소년 문화에 민감

하며 남한의 문화 속에 편입되려는 태도가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 입학 후 남한의 놀이문화에 잘 적응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성인 탈북자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사회적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탈북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소위 ‘왕따’를 당하기 쉬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2002). 이와 같이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할 때 가장 방해를 받는 것은 남한 국민들의 편견이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보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지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본다는 점이다. 이에 남북한 청소년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풀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박모란, 2002). 이를 위해 탈북 청소년들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문화를 하루 빨리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보다 남·북한의 화합차원에서 우리도 북한의 문화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탈북자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거나 북한으로 다시 재북송되는 것을 반복하다가 중국,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같은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된다(전우택, 2000). 이처럼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된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은 남한의 같은 또래보다 인지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 도래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민성길(2002)은 북한의 청소년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를 하거나, 탈북자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조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제3국의 체류기간이 짧고 비교적 최근에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래나 놀이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북한 청소년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9년 가을에 독일이 통일을 하였을 때, 구 동독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정치적, 경제적 통일을 넘어선 문화적, 심리적 통합이 쉽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Trommsdorff, 1994, 재인용). 통일이후에 동·서독 지방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동독지방 청소년들이 서독지방 청소년들보다 체제변화의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긴장감과 우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gner & Sydow, 1996, 김혜은, 서봉연, 이순형, 1999, 재인용).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므로 가치관, 사회적 스트레스, 발달과업의 달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적응에 대한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Hurrelamann, 1991, 재인용).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청소년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초로 볼 때, 우리나라도 장차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 교육과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구동독 청소년들과 달리 생존권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과 독재정치로 인해 스스로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선 탈북 이전에 그들의 문화

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전우택(2000)은 탈북 청소년들이 '이중 문화적 상태'가 되도록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생활을 동시에 인정하고 각 사회의 가치와 특징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 중에는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잘 통합하지 못하고 남한의 노래나 놀이문화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편승하려하거나, 자신보다 몇 살 적은 남한 학생들과 같은 학년이 된다는 사실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청소년들의 차림새와 놀이 문화를 선망하면서도 남한의 대중문화에 낯설어한다. 이와 같은 놀이 문화에 대한 괴리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서 부적응 뿐 만 아니라 문화적 장애를 야기하게 된다(이기영, 2002).

이순형(1999)은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아동과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와 놀이를 조사하여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서나 의미의 공통성이 변화되었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 연변의 아동이 즐겨 부르는 놀이노래를 60곡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한국가요가 22곡, 한국 동요 1곡과 중국노래 37곡이라고 한다. 남한의 동요 중에서 연변 초등학생이 부르는 동요는 '꼭꼭 숨어라'이고, 한국 가요는 '비내리는 호남선'을 비롯한 H·O·T와 같은 남한의 가수와 대중가요들이 알려져 있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요를 거부감 없이 즐겁게 부르는 것은 노래와 가요의 확산력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이순형이 북한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35곡의 노래들은 서사적인 내용이거나 김일성 부자의 숭배내용이 포함되는 등과 같은 정치적 의도성이 내포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달', '나의 살던 고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노래는 여전히 남·북한에서 공동으로 불리어지고 있었다.

노래는 한 시대의 민족문화와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중국과 동남아에서 한류열풍이 조성되는데 밀거름이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가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나라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나 음률을 통해 민족적 정체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남한의 노래와 놀이에 관한 비교연구는 이순형(1999, 2000)의 연구 외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단어와 어휘의 변절도 생기고, 사회이념과 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할 것이다.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의 놀이도 변화하게 되어 있다.

비교적 근래에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어 북한의 문화와 노래에 대해 접할 수가 있으나, 그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는지 또 어떤 놀이를 하는지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북한에 대해 관심 가지기'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갈등과 피리가 있다(김지영, 1996). 심지어 어떤 방향으로 북한과 통일교육을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조차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한다(지성애, 김숙자, 1998). 그 이유는 이념의 차이로 우리가 기타 다른 외국보다 더 북한의 문화에 대해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부르던 노래와 놀이를 조사하여, 남·북한 청소년의 문화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청소년의 연령은 13, 14에서 18세 정도에 이르는 연령을 의미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과 외국의 체류기간동안 적절한 영양공급과 제도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세에서 20세를 탈북 청소년의 집단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의 해소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탈북 청소년들을 통해 본 북한 노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탈북 청소년들을 통해 본 북한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자가 사전에 하나원에 입주한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결과, 너무 어린 나이에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들은 북한의 노

래나 놀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1) 실제로 탈북 청소년들은 입국 이후 자신보다 2~3년 낮은 남한의 교육과정에 들어간다(이기영, 2002).

〈표 1〉 연구대상자의 인적사항 특징

이름 (가명)	성별	연령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 력	제 3 국 체류기간	입국 경로
노영인	여	13세	(부 사망) 모, 언니	함경남도 함 흥 시	고등중학교 1년 중퇴	5개월	언니와 탈북하여 중국 길림성에서 거주하다가 베트남을 통해 언니와 함께 가족동반 입국을 하였다.
최정아	여	15세	(부 사망), 모	함경북도 명 천 군	고등중학교 2년 중퇴	4개월	중국친인척의 도움으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모와 함께 가족동반 입국을 하였다.
강민희	여	18세	부, 모, 오빠, 남동생	함경북도 회 령 시	고등중학교 4년 중퇴	11개월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모, 오빠, 남동생과 함께 가족동반 입국을 하였다
손지혜	여	17세	(부 사망), 모, 여동생, 숙부, 고모	함경남도 신 포 시	고등중학교 4년 중퇴	16개월	생계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중국동포의 도움으로 여동생과 함께 가족동반 입국을 하였다.
유희란	여	20세	(부, 모 사망) 오빠, 언니, 동생	평안북도 삭 주 군	고등중학교 5년 중퇴	8개월	사망한 아버지가 남한의 출신이라 차별대우를 받다가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 단독 입국을 하였다.
박광수	남	19세	부, 모, 여동생	함경북도 나 진 시	고등중학교 5년 중퇴	15개월	부모가 탈북후 여동생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모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사람의 안내로 여동생과 두만강을 도강, 탈북하여 한족의 안내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입국을 하였다.

전에 교회와 같은 자선단체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찬송가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대상자는 북한을 처음 탈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청소년 6명(남 1명, 여 5명)²⁾이 선정되었다.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연구자가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은데, 신분보장을 위한 윤리

적인 문제로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최근에 여성과 청소년의 탈북이 증가함으로 인해 1명의 남자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여자 청소년이다. 이 중에서 4명의 청소년은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였고, 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탈북 동기였다. 입국전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불법 체류로 인해 꽃제비 생활을 한 청소년도 2명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출신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이고, 모두 제 3국을 경유해서 남한에 입국한 경우이며 체류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6개월 기간이었다. 연령은 13세에서 20세이고 북한에서의 학력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2)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입국하게 되면,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에서 2개월 간 정착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표집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2. 연구기간 및 자료수집

연구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 혹은 참여 가능한 청소년을 다른 교육생들에게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개별 면접실에서 주일에 1-2회씩, 총 4-5씩 탈북 청소년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시간은 평균 30분 내외였고, 기억나는 노래가 있을 때마다 다시 재면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에 청소년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처음 1-2차례의 면접은 라포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모든 대화기록은 전사되었으며, 녹

취록 분량은 A4용지 38장이다. 면담과정에서 연구자가 “북한의 노래와 놀이문화에 대해 남한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어렸을 적에 즐겨 부르던 노래나 놀이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줄래?”라고 요청하였다.

청소년들은 ‘노래’와 ‘놀이’가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라서 적극적으로 연구에 협조하였다. 그리고 노래를 직접 불러주고 연구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설명을 해주었다. 하나원 마당에서 직접 놀이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여준 청소년도 있었다. 본 면접조사를 통해 총 31곡의 노래와 21가지의 놀이가 수집되어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탈북 청소년의 노래

다음 표 2에 제시된 노래 사례는 연구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가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31곡 중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6곡, 인민학교에서 배운 노래 2곡, 중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2곡으로 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총 10곡(32.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TV와 영화에 나오는 주제를 많이 불렀는데 총 7곡(22.5%)이었다. 이것은 북한의 청소년 문화도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고무줄과 뽕뽕기³⁾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4곡

(12.9%) 소개하였다. 이 밖에 애국애족을 고취하기 위한 노래는 4곡(12.9%)으로 모두 가사가 진취적이고 혁명성을 드높이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절에 부르는 노래가 1곡(3.2%), 김일성 부자의 이상승배와 관련된 노래가 3곡(9.6%)이었다. 기타 일상생활에서 전파된 노래가 2곡(6.4%)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고향의 봄’을 즐겨 부르고 있었다. 비록 애국애족과 혁명가의 가사는 투쟁적이지만, 그 외에 고무줄 놀이와 TV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의 음률은 경쾌하고 귀여운 리듬이 많았다.

하나원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노래는 ‘혁명군가’였다. 그만큼

3) 남한에서 줄넘기라고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뽕뽕기라고 한다. 새끼줄로 만든 것을 뽕줄이라고 하는데, 10~15미터정도의 줄을 땅에 끌리게끔 두 명이

팽팽하게 잡고 돌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줄을 넘는 놀이이다.

〈표 2〉 북한 청소년이 즐겨 부르는 노래의 사례

구분	노래제목	노래 첫 구절	음률에 대한 느낌	비고
학 교 에 서 배 운 노 래	조선의 노래	아침에 햇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2박자의 약간 빠르고 경쾌한 노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새나라 어린동무 노래부르자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낙원에서 꽃피려하는	매우 빠르며 씩씩하고 진취적이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선생님 안녕히	선생님 선생님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인사하고 갈래요.	약간 빠르며 귀엽고 감직한 느낌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우리 교실	동무 동무 모여라 유희시간 됐단다. 풍금소리 맞추어 차례차례 서자요.	중간속도에 감직하고 또박또박 부르는 것이 귀여움, 율동도 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전기, 어디로 가나	사랑 사랑 전기 어디로 가나요 줄타고 산 너머 공장 간데요. 공장 가서 전기는 무엇하나요	약간 빠르며 감직하고 명랑하며 귀여운 느낌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고향의 봄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약간 느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남한과 동일하다.
	우리집의 목란꽃	흰눈보다 하얀 꽃 금강산의 목란꽃 곱게 곱게 피었네 나를 보고 웃지요.	보통 빠르기이며, 맑고 깨끗한 느낌	9세 때 인민학교에서 배운 노래
	제목미상	아침햇살 솟아오르면 달랑달랑 책가방 매고요 어깨동무 손목잡고	2박자의 빠른 속도이고, 신이 난다.	인민학교 1학년 때 배운 노래
	모란봉	모란봉 청류벽을 구비 돌아서 대동강 맑은 물은 어디로 가나 ?	4박자에 느린 곡이며 근엄하게 부른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노래
제목미상	내 인생 꽃피워준 그 온정 못잊어 오늘도 새벽길 남먼저 건네	3박자의 보통 속도로 충성의지가 느껴지는 노래	인민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노래	
T V 영 화	고마운 처녀	하늘 높이 날아볼까 마음은 두둥실 떴네 너도 함께 나도 함께	2박자의 빠른 곡으로 자유로움이 느껴지며 신명나고 흥겨운 노래이다.	2000년도 TV의 드라마에서 배운 노래
	다랑이 (다람쥐)와 고슴도치	정다운 고향을 멀리 떠나 흘러간 직후의 나날 꿈결에도 꿈결에도	엇 박자에 느린 곡이며, 고향에 대한 애잔함이 묻어난다.	아동영화에 나오는 노래
	TV「아들」의 주제가 (불분명)	나는 키가 벌써 한 뼘 한 뼘이나 컸는데 우리 엄마 나를 보며 손잡고 함께 걷지요	2박자의 보통 빠르기에 잔잔하고 감동적인 노래	북한의 TV 「아들」의 주제가
	싸리나무	싸리나무 한 가지는 꺾기 쉽지만 아름드리 나무는 꺾지 못하네 여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며	2박자의 보통 빠르기로 의지에 차고 힘차기 부른다.	영화「피바다」에 나오는 노래이다.
	준엄한 평화	푸른 바다 바라보며 너와 나는 속삭였지 세찬 파도 밀려와도 손을 잡고 함께 걷자	2박자에 보통 속도이며 우정을 그리는 아름다운 멜로디이다.	TV에서 배운 노래

T	민족의 사나이	저 하늘 흰 구름에 실려 내 마음 훨훨 날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며	4박자에 사뿐사뿐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흥겨운 노래이다.	TV의 드라마에서 배운 노래(주인공은 김신락)
	V	곡절 많은 운명	추억의 뜻을 달고서 저 멀리 올라가 보니 곡절도 많은 내 인생 굽이굽이 흘러왔네	4박자에 장엄한 노래
놀이할 때	민족과 운명	아지에 새싹이 움틀 때, 그대가 바라는 건 무얼까	2박자의 약간 느린 속도며 아름다운 느낌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기차는 빠르다.	기차는 빠르다. 여행길을 가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2박자의 보통빠르기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제목미상	아지랑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종다리 지롱지롱 새 춤을 춘다네	2박자의 보통빠르기	뒹뒹기하면서 부르는 노래
	애기 꽃나무	꽃나무 꽃나무 애기 꽃나무 약비가 내려요 어서 심자요	2박자에 빠르며 감쪽한 느낌	뒹뒹기하면서 부르는 노래
애국	혁명군이 왔구나	혁명군이 왔구나 우리 마을에 왔구나 붉은 기 휘날리며 왔구나.	보통 속도이며 즐겁고 신이 난다.	인민학교 때 배운 노래
	소년단 행진곡	밝아오는 조국 땅에 노을 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우리들은 공화국의 나이 어린 영웅	4박자의 보통빠르기에 행진곡 스타일	소년단에서 배운 노래
	애국가	아침을 빛나라 이 강산 황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찬란한	보통 빠르기에 아름다운 선율	TV방송이 끝날 때 나오는 노래
	혁명군가	혁명군야 혁명군야 너 어디 가니 총과 폭탄 가지고 어디로 가니	매우 빠르며 위풍당당하고 씩씩하며 자신감 있게 부른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부르던 노래
우상 숭배	김일성 장군의 노래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빠르게 진취적이며 씩씩하게	기념행사가 있을 때 자주 부르던 노래
	김정숙 어머니 탄신가	두만강 기슭에 꽃들은 피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납니다.	3박자에 약간 느리며, 그리움이 전해진다.	김정숙 어머니 탄신 일에 부르는 노래
	김정일 원수 탄신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시고 좋은 일 할 때면 칭찬하세요. 아 나의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3박자에 보통속도이다,	김정일 원수 찬송가
명절	색동저고리	내가 입은 저고리 색동저고리 아롱다롱 무지개 정말 고와요.	2박자의 가볍고 귀여운 느낌이다.	12월31일 잔치 때 부르는 노래, 5세 때 배운 노래라고 한다.
기타	나는 될 터이다	나는 나는 될 터이다. 음악가가 될 터이다. 울치 울치 내가 내가	빠르고 희망적이며 리듬이 단조롭지만 따라 부르기가 쉽다.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노래 (음악가, 비행사, 과학자 등)
	강승부흥 아리랑	무릉도원 꽃 피어가니 흥미로다 아리랑 제 힘으로 세워가니 멋이로다 아리랑	3박자의 보통 속도로 흥에 겨운 고전풍의 노래이다.	2002년도에 북한에서 유행하던 노래이다.

주체의식과 사상교육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불려진 노래인데, 구체적인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혁명군가」

혁명군아 혁명군아 너 어디가니
총과 폭탄 가지고 어디로 가니
왜놈들을 때리러 저기로 간다.
혁명군이 되려면 너도 갈 수 있다.

「혁명군이 왔구나」
혁명군이 왔구나 우리 마을에 왔구나
불은 기 휘날리며 왔구나
혁명의 총을 데고 돌아왔구나

위에 제시된 ‘혁명군가’와 ‘혁명군이 왔구나’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내용도 공격적이고 투쟁적이라 남과 북한의 이질된 문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북한 아동·청소년들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한다. 다음은 드라마 ‘아들’의 주제가와 ‘선생님 안녕히’라는 노래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히 묻어나는 가사를 담고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남·북한의 동일한 정서임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곡 전체에서 음율이 경쾌하고 귀여운 느낌이 든다.

「아들의 주제가」

나는 키가 벌써 한 뿔 한 뿔이나 컸는데
우리 엄마 나를 보며 손잡고 함께 걸어요
(후렴) 언제나 언제나 걱정 많던 우리 엄마 가슴엔 사랑 넘쳐요

햇님 별님 따라 피는 꽃이 되라 하시던
우리 엄마 정든 얼굴 나는야 잊지 못해요
(후렴) 언제나 언제나 걱정 많던 우리엄마 가슴엔 사랑 넘쳐요.

「선생님 안녕히」

선생님 선생님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인사하고 갈래요
선생님 안녕히

2. 탈북 청소년의 놀이

탈북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북한에서 즐겨하던 놀이는 모두 21가지가 수집되었다.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즐겨하는 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유사한 놀이가 많았다. 명칭이 다소 바뀌었지만, 남한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함경도에서는 ‘돌 가 천’이라고 한다던가 ‘주먹, 가위, 보’ 등으로 순서가 다소 달랐다. 북한의 놀이문화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인 윷놀이, 오치⁴⁾ 던지기, 제기차기, 땅 먹기, 고무줄 놀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북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던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는 종이 및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한 이유로 베어링이나 다른 물자를 가지고 놀이를 하였다. 즉 북한 어린이들은 방과후에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경제적 부담이 없고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몸으로 하는 집단놀이를 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재미있는 놀이의 예로 ‘신발 뺏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발 뺏기」

사람	1	사람
2	술래	4
사람	3	사람

사람들은 1, 2, 3, 4로 움직일 수 있고 술래에게 잡히면 신발을 한 짝씩 주어야 한다. 그리고 2사람이 1칸에 몰려 있을 경우 술래는 이들을 잡을 수 있다.

4) 북한에서는 오자미(콩주머니, 팥주머니)를 오치 또는 오재미라고 부른다.

〈표 3〉 북한 놀이문화

북한놀이명	놀이 방법	유사한 남한 놀이명
신발뺏기	술래에게 잡히면 신발을 한 짝씩 주어야 한다. 신발을 뺏기면 패자가 된다.	손오공
못치기	남한의 자치기와 비슷하지만 못으로 구슬 따먹기를 한다. 원안에 자기가 가진 만큼의 못을 놓아두고 못으로 못을 쳐서 원 밖으로 나간 숫자만큼 못을 가지고 간다.	자치기, 구슬 따먹기
망까기	놀이의 이름은 목표물로 세워놓은 돌이 비석 같다거나, 돌을 날려서 목표물을 맞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 놀이는 일정하게 거리를 둔 곳에 선을 긋고, 거기에 돌을 세워 둔 다음,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던지는 돌(망 또는 말이라고도 한다)로 목표물을 쓰러뜨리는 놀이이다.	비석 세우기, 비석 치기, 망개 까기
말타기	먼저 2사람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리하여 이긴 사람과 진 사람끼리 한 팀을 만든다. 진 사람들은 마부와 말이 되고 이긴 사람은 말을 타면 된다. 말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주자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다.	말타기
오치	작은 주머니에 팥이나 콩, 모래를 넣어 만든 오자미로 바구니를 터뜨리는 놀이이다.	오자미 팥(콩)주머니
뽕틀	쌓아올린 뽕틀을 가장 높이 넘는 사람이 이긴다.	뽕틀
뽕뛰기	두 사람이 줄을 돌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줄을 넘는다.	줄넘기
눈감기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숨고, 이것을 술래가 찾는다.	숨바꼭질
딱지치기	두꺼운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 상대방의 딱지를 쳐서 넘기면 이기게 된다..	딱지치기
제기 차기	가장 제기를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긴다.	제기차기
땅따먹기	땅에 선을 그어놓고 돌을 3번 핑겨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서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긴다.	땅따먹기
공기놀이	여러 개의 작은 돌맹이를 던져서 받는 게임이다.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두 아이가 고무줄을 팽팽히 잡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리를 엉키게 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한다.	고무줄 놀이
웃놀이	명절에 웃을 던져 4개의 말이 먼저 나는 팀이 이기는 게임	웃놀이
담알먹기	구슬치기와 같으나 구슬이 없어 배어령이라는 기계부속품을 가지고 논다.	구슬치기
보물찾기	보물을 숨겨두고 찾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보물찾기
해바라기	원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술래가 수건을 한 사람의 등 뒤에 몰래 놓고 달아난다. 수건을 받은 사람은 재빨리 술래를 잡아야 한다. 만약 미처 수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래가 되고 벌칙을 받는다.	수건돌리기
기차놀이	두 명의 술래가 손을 위로하고 잡아서 원모양의 고리를 만들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 줄로 서로의 허리를 잡고 기차를 만든다. 그런 다음, 노래를 함께 부르고 노래가 끝났을 때 두 명의 술래가 손으로 만든 원안에 한 사람이 잡히게 된다. 잡힌 사람에게 두 명의 술래는 어느 편으로 갈 것인지 물은 후 두 편으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마지막에는 서로의 허리를 잡고 줄다리기처럼 해서 승패를 가린다.	기차놀이 (동대문을 열어라)
기차달리기	한쪽 발에 끈을 일렬로 묶어 기차바퀴처럼 뛰어나니며 칩칩폭폭 소리를 외치며 달린다.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이다.	
통일놀이	마치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것처럼 반대편에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로 팀을 나눈 다음, 38선을 지키고 있는 술래를 제치고 반대편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면 통일이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돌가천	놀이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술래를 정하기 위해 시작하는 구령이다.	가위 바위, 보

은 남한과 유사한 놀이인데, 명칭이 다른 것을 나타낸다.

북한의 '신발 뺏기' 놀이는 우리 남한의 '손 오공' 놀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놀이의 규칙이나 방법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대상은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의 청소년 6명으로 그들이 북한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와 놀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북한에 대한 자료를 다량으로 수집할 수가 없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법과 질적 조사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노래와 놀이가 전파력이 강하고 또한 유행과 변화가 심하다는 판단 아래,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노래는 서양의 팝(pop)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인지 리듬이나 가사에서 고전적인 음률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 으로 시작하는 '고향의 봄'을 즐겨 부른다고 밝혀져 이순형(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북한의 노래는 유일사상에 입각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거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공격성을 야기하는 '혁명가'와 '혁명군가'⁵⁾와 같은 노래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불리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남·북한의 이질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아들'의 주제가와 '선생님 안녕히'라는 노래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히 묻어나는 가사를 담고 있어 한민

족의 공통정서를 느끼게 한다. 이 밖에도 '색동저고리'와 '나는 될 터이다'는 가사도 흥겹고 따라 부르기도 쉬워 남한에도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드라마의 주제 또는 영화에 삽입된 노래를 쉽게 기억하고 있어 북한의 어린이들도 텔레비전 보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 본 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도 우리처럼 어린이 시간이 있는데 매일 10~20분 정도의 만화 영화, 인형극, 문답풀이인 '척척박사', '학교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고 한다(사이버통일교육센터, 2003). 이러한 점은 앞으로 남북한의 공동체감과 정서적 정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놀이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옛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전통놀이가 그대로 계승되어 민족 정체감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노는 경우가 대부분 반면에, 북한의 아이들은 아직도 자연과 신체를 이용한 놀이를 많이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이 신체활동이나 고무줄 놀이를 많이 하였지만, 요즘은 성인가수나 십대 가수를 모방하는 가요를 부르거나,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게임방에서 '포트리스' '스타크래프트'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선호한다(성윤숙, 이소희,

5) 연구대상자들은 사상성이 있는 '혁명군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숙 어머니 탄생가' 등을 부를 때, 연구자의 눈치를 살핀다거나 "선생님,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우린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라고 확인하는 물음을 하였다. 남한에 와서 북한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다.

2003). 우리의 청소년 놀이문화는 서구화 되어 가고 있지만, 북한의 놀이에서는 옛 정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배와 최진이(2001)는 북한의 남아들이 들판에서 과녁에 활을 쏘아 시합을 하는 활쏘기를 하거나 참나무, 수숫대, 옥수숫대 같은 막대기로 말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대말을 타는 말타기, 상대의 진지를 공격하여 빼앗는 전쟁놀이를 즐겨한다고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이러한 놀이를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21가지의 놀이는 모두 경제적 부담이 없고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집단 놀이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여아들은 줄넘기 놀이를 뽀뽀기라고 하는데, 새끼줄을 이용하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며 줄넘기를 하는 것은 남, 북한의 모두 공통된 점인 것 같다. 남아들이 딱지치기, 못 치기, 담알 먹기, 땅따먹기, 술래잡기, 해바라기 놀이 등을 하면서 노는 반면에, 여아들은 고무줄 뛰기, 공기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가 차이를 나타낸다.

북한에서는 모든 생활이 통제되고 획일화되어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우선 먹는 문제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이 풍요로운 개인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사이버통일교육센터, 2003). 이러한 연유로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던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는 종이 및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한 이유로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있고, 배어링이나 다른 물자를 이용하여 놀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이 6명이고 모두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자들이다. 그래서 다른 북한지역의 노래와 놀이문화에 대

한 광범위한 수집은 미흡하였다. 연령도 13세에서 20세의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자료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르던 노래와 놀이가 혼합되어 있다. 탈북자들이 전체 북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는 제약점이 뒤따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노래와 놀이가 세부적으로 고찰되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다음의 후속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의 청소년들이 함께 놀이를 해봄으로써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남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남북 청소년이 공통으로 화합하기 위한 캠프활동도 최근에 유행하는 남한의 노래와 춤을 북한의 청소년에게 소개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 청소년을 이해하고, 민족공동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래와 놀이를 접하는 것이 화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 본 연구의 자료가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순형(2000)은 이념의 차이로 인해 반세기 동안 달리 형성된 한민족 아동·청소년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차이점만을 인식하고 등을 돌리지 않으며 민족 동포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 6) 하나원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적응을 돕고,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들을 청소년 캠프에 참여시키고 있다.

를 극복해야만 한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열심히 교환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뒷 배경까지 이해하고 겨안을 수 있다면, 통일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으로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것이

다(민성길, 2002). 마지막으로 통일이 되어 남·북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서로 좋아하는 노래와 놀이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김혜은, 서봉연, 이순형(1999).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 *인간발달연구*, 6(2), 2-17.
- 민성길(2000). *통일과 남북 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민성길(2002). 통일한국의 미래시대. *통일연구*, 6(1), 5-45.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 사회 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지영(2001).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본 탈북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집 단프로그램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윤숙, 이소희(2003). 게임방 청소년의 사이버일탈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아동학회지* 24(3), 109-134.
- 엄경남(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심리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2002).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상배, 최진이(2002).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파랑새 어린이
- 이순형(1999). 중국,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노래놀이와 한민족 정서. *한국아동학회 2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 밀레니엄 시대의 아동환경변화와 아동학의 기여*. 55-119.
- 이순형(2000). 중국연변 조선족 어린이들의 놀이와 놀이노래 조사연구. *아동학회지*, 21(3), 69-83.
- 사이버통일교육센터(2003). www.uniedu.go.kr
- 정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 도서출판 오름.
- 전우택(2002). 탈북자들을 통하여 보는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전망. *통일연구*, 6(1), 47-61.
- 전익수(2001). 탈북 청소년 초기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병호(2001). 탈북학생 사회,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1-05.
- 조소연(2001). 북한 이탈아동의 사회적응 멘터링 프로그램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성애, 김숙자(1998).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8(2), 25-50.
- 통일부 내부자료(2003). *탈북자 현황자료*, 통일부.
- 홍덕기(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학교 및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Hurrelmann, H.(1991). *Sozialisation und Gesundheit Weinheim* : Juventa.
- Trommsdorff, G.(1994). *Psychologische Probleme bei de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Ostdetuschland*.

- In G. Trommsdorff(Hrsg.). *Psychologische Aspekte des soziopolitischen Wandels in Ostdeutschland*. Berlin : Walter de Gruyter.
- Wagner, C. & Sydow H.(1996). *Entwicklung und Sozialisation von Jugendlichen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In S. Hormuth, W.R. Heinz, H. J. Konrad, H. Sydow & G. Trommsdorff(Hrsgs.) *Individuelle Entwicklung, Bildung und Berufsverlaufe*. Opladen : Leske Budrich.